

## Medical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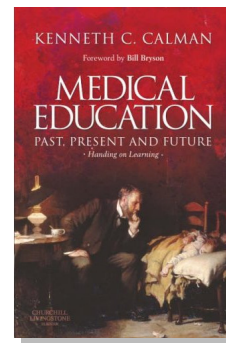
- Title: Medical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 Author: Kenneth C. Calman
- Publisher: Elsevier, 2007

최근 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학생 중심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은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통해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의학교육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의학교육의 자취를 되돌아보며(과거), 현재의 모습을 고찰하고(현재), 미래의 변화(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등 의학교육의 3단계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의학교육의 3단계 여행 중 첫 번째 단계는 연대기적, 지리적 여행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의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 그리스, 로마, 아라비아를 거쳐 살레노, 볼로니아, 파리, 라이덴, 에든버그, 글래스고, 베를린, 런던 그리고 미국에서의 의학교육을 고찰하고 있다. 그런 다음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의 의학교육을 돌아보고 세계의 많은 신설 의과대학을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의학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수세기 동안 의학교육에 입문한 학생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어떠한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또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문의 재인증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읽고, 관찰하며, 40년 이상 가르친 경험에 기반을 둔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의학은 무엇인지,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학과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이며, 그 관계와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교육의 시사점을 개발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핵심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속의 의사는 이 주제들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의사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옹호자와 주도자 그리고 교사, 멘토, 조언자이자 친구임을 강조한다.

둘째, '좋은'의사의 자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Korean J Med Educ 2010 Dec; 22(4): 325-326.

doi: 10.3946/kjme.2010.22.4.325.

pISSN: 2005-727X eISSN: 2005-7288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수 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도해 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수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누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선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학생선발은 히포크라테스 시기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유효한 주제임을 강조하고,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를 의학교육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넷째, 새로운 지식의 탐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의학의 특징 중의 하나인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이 의학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 자체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학습 그 이상, 즉 새로운 지식의 탐구는 질병과 진료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변화에의 도전과 그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의학의 매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의

학교육의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 세계의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다양한 교수진과 의과대학에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이끌렸는지를 다루고 있다. 의학의 매력은 세대에 따라 변했지만, 리더십은 의학교육의 영구적인 특징이며,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교육도 이제 100여 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 우리도 의학교육을 고찰해야 할 시점에서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Sun K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